남녀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소비지출의 영향요인 분석

The Economic Status and an Analysis of the Expenditure of the Single Elderly Household of Men and Women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강 사 이 윤 정
충남대학교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 수 김 순 미

Dept.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 Yoon-Jung Lee
Dept.of Cosumers' Life Inform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Soon-Mi Kim

목 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status and effect variables of expenditure of single elderly households using the 1996 Expenditure Survey of Urban Families from the Korea National Office. This study examined gender differences in total house income, expenditure and effect variables of expenditure. The results show that women had lower economic condition than men and that income is the most effective variable of expenditure for both. The results imply the need of employment and active support to improve household income especially for women who have a higher possibility of poverty.

주제어(Key Words): 노인독신가구(single elderly household), 경제상태(economic status), 소비지출(expenditure)

Corresponding Author: Yoon-Jung Lee, Sungshin Women's University, 249-1 Dongsun-dong 3ga, Sungbook-gu 136-742, Korea
Tel: 82-2-920-7205, 017-290-2952 E-mail: yoon2525@hanmail.net

I. 문제의 제기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후의 생활문제는 개인이나 가정,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짧고, 이제는 노인인구가 20%이상인 초고령사회를 우려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령사회를 위한 준비와 제도적 지원 등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의학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의 평균수명 연장과 출산율 감소 등은 노인인구를 꾸준히 증가시켰고 그로 인한 부양문제를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등장시켰다. 이 후 노인 및 노인집단의 특성을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고,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노인이나 노인집단의 생물적 연령집단에 근거하여 동질적 집단으로 분류하는 경향이지만 노인 및 노인집단 이면에 내재하는 다양한 특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고양곤, 1999; 김동일, 2001; 이정숙, 1998). 그러나 노인인구가 급증할수록 개인 및 집단 내 이질성이 점차 더 많이 나타나고,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이들 경제수준이 다른 노인가구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때, 노인문제를 다루는 시각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모색에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성지미 · 이윤정, 2001, 이윤정, 2003).

2002년도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비율은 8.7%로 1984년 4.1%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중 노인독신가구의 비율도 1985년 6.6%에 비해 2000년에는 16.2%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통계청, 2003), 이들의 경제상태는 노인부부가구나 자녀동거노인가구에 비해 소득과 지출, 순자산의 측면 모두에서 심각한 불평등이 증명되었다(성지미 · 이윤정, 2001).

노인독신가구는 평균 연령이 높고 노화에 따른 건강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려우며, 이와 같은 이유로 다른 노인집단보다도 경제활동율이 떨어지고 소득수준도 낮다(성지미 · 이윤정, 2001). 특히 이들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살펴 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비의 불균형이 심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월등히 많아짐을 알 수 있는데,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제상태는 노인독신가구 내에서 다른 이질성이 발견될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성지미 · 이윤정(2001)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가구 중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나 부부노인가구보다 노인 혼자 독신으로 살고 있는 1인 가구의 형태가 가장 불평등한 경제상태에 처해있어 이들의 경제상태의 불평등한 구조가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신숙 · 이경주(2001)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여성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인데, 이러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경제상태는 건강상태보다 더 영향력이 큰 요인으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 노인보다 경제상태가 나음을 예측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노인집단을 연령이나 은퇴여부, 가족원간의 동거유형 등을 토대로 이들의 경제상태를 분석한 바 있으나, 보다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 노인가계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할 뿐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제상태의 불균형에 관심을 둔 연구는 진행된 바 없다(김연정, 1998; 문숙재 외 2인, 1996; 성지미 · 이윤정, 2001; 심영, 2000; 양세정 · 성영애, 2001).

이에 본 연구는 노인독신가구 집단의 이질성에 초점을 두고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노인의 경제상태 분석을 위해 노인독신가구를 남성과 여성 집단으로 나누어 소득과 지출구조 등을 살펴보고 소비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생활양식이 성별집단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석된 결과는 생활실태 파악과 고령사회의 노인생활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노인가구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소비지출수준

일반적으로 노인가구는 소득수준이 낮으며 근로소득이 주된 소득원이 되지 못하여 불충분한 재산

소득과 연금혜택, 그리고 자녀의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을 유지한다(김익기 외 6인, 1999; 정경희 외 5인, 1998). 특히 저소득층의 노인가구는 주로 노인독신가구인 경우가 많은데(성지미 · 이윤정, 2001), 그들은 대부분의 생활비를 식생활(36%), 의료비(30%)와 주택임대료 및 관리비(21%)로 지출하며 여가 및 개인적 활동에는 거의 지출하지 못하고 있다(박재간 외 2인, 1996). 성지미 · 이윤정(200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는 노인부부가구 및 자녀동거노인가구와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며, 주로 성인자녀의 지원이나 사회보장의 이전소득으로 월평균 49만 5천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43만 7천원 정도의 지출을 하고 있다. 또 노인독신가구는 경제상태에 대한 분배현상에서도 불평등하게 나타나[1] 일정수준의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노인독신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경제생활의 어려움은 더욱 심하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독신가구를 조사한 심영(2000)의 연구에서도 소득, 자산, 지출에 있어 경제적 복지상태가 유배우자 노인가구보다 배우자가 없이 독신으로 사는 노인가구의 경우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독신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는 그들이 빈곤의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필 수 있는데, 그것은 약 9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교육수준도 다른 노인가구보다 낮으며 평균 연령도 높고 취업률 또한 낮다는 점에서이다(서경현 · 김영숙, 2003; 성지미 · 이윤정, 2001). 이러한 노인독신가구의 상황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낮은 복지수준으로 인해 노인집단 내에서도 소외당하기 쉬운 취약집단임을 암시한다.

2. 노인독신가구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1) 성별

여성노인 독신가구는 사별이나 이혼, 시장에서의 고용차별 등으로 인해 제반 상황이 매우 취약한 상태이며, 연금기회의 부족이나 사회보장 수혜액의 불충분으로 같은 처지의 남성노인 독신가구들에 비해 빈곤율이 높다. 또한 배우자의 사망은 남성노인에게 있어 경제상태 악화를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나 여성노인에게는 사별이 그들 자신의 경제상태를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Lee, 1994). 또 경제상태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도 여성은 시간에 대해 연속적 개념을 갖고 남성은 불연속적 개념을 가지므로 투자결정이나 자산보유에 있어 여성은 현재 안정지향적인 성향을 보이며, 남성은 미래 성장지향적 성향을 보여 물질소비수준에 다름을 보인다(Fitzsimmons & Wakita, 1993). 심영(2000)의 연구에 의하면 비록 충북지역에 국한되어 있기는 하나 소득과 자산 측면의 경제복지는 남자노인이, 소비지출 측면에서는 여자 노인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어 성별에 따른 사회경제적 배경과 경제상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차이가 구체적인 지출내용과 수준에 영향을 주게 됨을 예측할 수 있다.

2) 연령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연령은 가계의 소비지출항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은 비노인가구의 66%정도로 낮으며(심영, 2000), 노인가구에서도 식비나 교통통신비, 주거비, 피복신발비, 가구 · 가사용품비, 교육비, 광열수도비, 의료비, 교양오락비, 기타 등의 비목은 연령과 부적으로 관련되어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세나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의 비소비항목은 연령과 정적인 패턴으로 지출되고 있었다(심영 외 3인, 1996).

3) 직업

Schulz(1995)와 김연정(1998)에 의하면 취업노인은 은퇴연금이나 사회보험료, 교양오락비 등에 더 많은 지출을 하며, 비취업노인은 식비와 의료비에

1) 성지미 · 이윤정(2001)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독신가구의 소득과 지출의 Gini계수는 각각 0.40, 0.46으로 노인부부가구(0.38, 0.41)와 자녀동거가구(0.32, 0.37)과 비교했을 때 매우 불평등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더 많은 지출을 한다. 그러나 심영의 연구에서는 (2000) 취업노인의 경우 주거비와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항목에서 비취업노인보다 더 많은 지출수준을 보여 다소 다른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성지미 · 이윤정(2001)의 연구에서는 취업상태에 따른 지출수준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상이한 결과는 추출된 표본집단의 차이로 기인된 것이라 사료된다. 은퇴한 노인집단 내에서는 남성노인 독신가구가 여성노인 독신가구와 비교해 유의미하게 외식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ubin & Nieswiadomy, 1994).

4) 교육수준

교육수준은 소득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노인집단이 형성된다(스탠리 파커, 1976). 그 결과, 의료비, 교제비, 비소비지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교육수준과 지출의 정적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심영 외 3인, 1996). 성영애 등(1997)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양오락비 지출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Nieswiadomy & Rubin(1995)은 교통비지출수준과 정적으로 관련됨을 보고하였다.

5) 주거형태

대개 노인단독가구들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며, 한 주택에서 2가구 이상이 동거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이들은 자기 집을 소유하는 비율이 높으나, 대도시에서는 임차인 경우가 더 많고, 가족수에 비해 넓은 평수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난방방식 등의 주거설비수준이 비교적 낮은 주택에서 거주한다(박태환, 1991; 이경희 · 장온정, 1991; 박경란 외 2인, 1995). 노인단독가구와 같이 노인 독신가구의 주거형태도 관련비목의 지출비수준에 영향을 미침을 추측할 수 있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단독가구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식료품비를 제외한 모든 비목에서 더 적은 지출을 하고 있다(심영 외 3인, 1996). 그러나 경제적 복지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주택의 소유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심영, 2000).

6) 소득

소득이 낮은 노인은 식료품비, 의료비, 주거비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은 여행, 취미, 오락비 지출이 높다(소비생활실태조사, 1991: 박경란 외 2인, 1995에서 재인용). 한편 Nieswiadomy & Rubin(1995)은 소득과 교통비지출간에는 정적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계운영에 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가활동, 건강용품사용, 보다 안락한 주거마련 등을 위해 자유재량으로 지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

7) 거주지역

농촌가구는 도시나 도시근교 가구보다 식료품비, 공과금 등의 지출이 많으며, 집세나 주거유지비는 도시가구가 농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 가구 ·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의료비 등은 도시근교 가구가 농촌 가구보다 많은데(심영 외 3인, 1996),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에 따라 생활물가수준과 생활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연구문제 1)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경제상태는 어떠하며, 그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가계특성은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타날 것인가?

연구문제를 위해 본 연구는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 가구주 직업유무, 주거형태, 거주지역, 가구연간소득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소비지출 10대 비목 중 교육비를 제외한 9대 비목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사용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1) 자료 및 표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6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통계청에서 조사·실시된 가구소비실태조사이다. 가구소비실태조사는 1992년 7월 1일 현재의 행정구역에 의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각 도의 시부 및 군부로 나눈 24개 지역별로 각각 조사구 명부를 작성하고, 각 지역별 표본 조사구에 따라 크기의 측도에 비례하는 확률로 표본조사구를 만든 후 전수조사한 것으로써 5년에 한번씩 시행된다. 그러나 2001년에 조사된 자료는 1인가구 패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독신인구의 경제상태를 살펴볼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1996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남녀노인 독신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할 것이므로, 55세 이상의 무배우자이면서 부양가족이 없는 여성노인 독신가구 1,980가구와 남성노인 독신가구 214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노인가구의 기준을 55세로 정한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1992) 기준의 고령자 정의에 의한 것이다.

2) 분석방법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일반적 특성과 소비지출 구성의 규모 비교를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t-test를 하였다. 그리고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남녀노인 두 집단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종속변수에 0값으로 응답된 수치가 15%가 넘을 경우엔 Tobit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회귀계수를 산정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는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종속변수			
소비지출 10대비목 중 교육비를 제외한 9대 비목	식비(외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 및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단위:원/월)		
가구주 관련변수			
가구주 연령	1=55-64세	2=65-74세	3=75세 이상
가구주 직업유무	0=없음	1=있음	
가구주 학력수준	교육년수(년)		
가구 관련변수			
주거형태	1=자가	2=전세	3=기타
거주지역	0=군부	1=시부	
가구주 재정관련변수(천원/년)			
가구주 연간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부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가구주 근로소득	피고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의 대가로 근무처에서 받은 일체의 현금 또는 현물보수		
가구주 사업소득	자영업자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소득으로서 총매출액이나 총수입에서 인건비, 재료비 등 일체의 사업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가구주 부업소득	주로 일하는 직업외 일로 벌어들이는 부수적인 소득		
가구주 재산소득	이자+배당금+임대료		
가구주 이전소득	연금+사회보장수혜+수증보조 및 기타		

〈표 2〉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일반적 특성

범주변수 \ 표본가구		여성노인독신가구(N=1980)		남성노인독신가구(N=214)	
		빈 도	%	빈 도	%
가구주 연령	55-64세	638	32.2	106	49.5
	65-74세	940	47.5	66	30.8
	75세 이상	402	20.3	42	19.6
가구주 학력	무 학	1144	57.8	62	29.0
	초등졸	620	31.3	52	24.3
	중 졸	92	4.6	56	26.2
	고 졸	96	4.8	22	10.3
	전문대졸 이상	28	1.4	22	10.3
가구주 직업	있 음	524	26.5	104	48.6
	없 음	1456	73.5	110	51.4
주거형태	자 가	1216	61.4	84	39.3
	전 세	398	20.1	36	16.8
	기 타	366	18.5	94	43.9
거주지역	시 부	1186	59.9	126	58.9
	군 부	794	40.1	88	41.1
연속변수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가구주 연령(세)		68.6	7.8	66.6	8.7
가구주 교육수준(년)		3.1	4.0	6.7	5.2
가구연간소득(천원/년)		5098.3	4739.9	7660.4	7296.9

총 분석대상은 여성노인 독신가구가 1,980가구, 남성노인 독신가구가 214가구로, 여성노인 독신가구의 평균 연령은 약 69세이며, 남성노인 독신가구의 평균 연령은 약 67세이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여성은 65-74세에, 남성은 55-64세에 분포비율이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에서는 여성의 경우 무학의 비율이 58%로 높게 나타나 평균 약 3년, 남성은 약 7년으로 평균적으로 남성노인의 교육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직업에서는 여성의 경우 직업이 있는 경우가 26.5%, 남성은 48.6%였으며, 주거형태는 여성노인의 경우 자가소유율이 61.4%, 남성은 39.3%로 남성의 자가소유율이 다소 낮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성노인의 사회참여율은 여성보다 높으나 여성노인은 소유에 대한 집착과 위험에 대한 감수정도가 낮은 관계로 주거소유율이 남성노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다.

연구대상의 가구연간소득에서는 여성의 경우 연간 약 510만원, 남성은 약 766만원으로 남성노인의 소득수준이 여성노인보다 비교적 높았다.

IV. 분석결과

1.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연간소득과 소비지출 구성의 규모 비교

1) 연간소득 규모의 비교

연구대상의 연간소득 규모는 〈표 3〉의 내용과 같다.

가구 연간소득액은 여성은 약 510만원, 남성은 766만원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남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여성은 96만원인 것에 비해 남성은 423만원으로 월등하게 높았으며, 사업소득액에서도 여성은 46만원, 남성은 83만원으로 남성이 더 많았다. 그러나 부업소득과 이전소득에서는 여성노인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의 부업소득은 5만원, 남성은 1만 5천원이었으며,

〈표 3〉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소득 비교

(단위 : 천원/년)

소득구분 \ 가구구분	여성노인독신가구(N=1980)		남성노인독신가구(N=214)		t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가구 연간소득	5098.26	4739.86	7660.44	7296.84	-7.06***
가구주 근로소득	962.70	2620.86	4232.35	7400.51	-13.39***
가구주 사업소득	464.92	1985.46	831.40	2982.43	-2.42*
가구주 부업소득	50.46	231.03	15.79	103.62	2.17*
가주구 재산소득	978.64	2459.09	849.50	2494.56	0.73
가구주 이전소득	2480.83	2647.32	1731.39	2042.53	4.01***

여성의 이전소득은 248만원, 남성은 173만원이었다. 이는 여성노인의 주거소유율이 높은 것과 관련된 것으로, 투자결정이나 자산보유에 있어 여성이 보다 안정지향적이라는 Embrey & Fox(1997)의 견해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소비지출구성의 규모 비교

실질적으로 자산이 감소되는 가계지출은 크게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분된다.

소비지출은 〈표 4〉에서와 같이 10개의 비목으로 구분하였는데,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가계지출, 그리고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액[2] 규모를 비교해 보면, 두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소비지출항목별 비교에서는 일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월 가계지출액 규모는 여성노인은 43만 2천 19원, 남성은 48만 7천 백 29원으로, 1996년 최빈계층의 표준적인 생활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산정액인 43만 3천 9백 18원과 비교해 볼 때(유경준, 1997), 여성은 그보다 조금 낮고 남성노인은 높은 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비지출비목의 구성별로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지출액 규모를 비교해 보면, 여성

2) 본 연구에서 소비지출이란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한 지출로 정의되며, 비소비지출이란 법적 또는 제도적으로 강요된 의무적 지출로서 소득세, 재산세 등의 조세와 기여금,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차입금이자, 벌금, 과태료, 피해보상금 등이 포함된다(통계청, 1998).

〈표 4〉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가계지출규모 비교

(단위 : 원/월)

구 성 \ 가구구분	여성노인 독신가구(N=1980)		남성노인 독신가구(N=214)		t값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가계지출	432,019	861,188	487,129	532,097	-0.92
소비지출	365,090	625,194	431,503	481,661	-1.51
식비	104,355	108,135	131,954	142,634	-3.43***
(외식비)	5,396	22,259	47,482	64,842	-19.99***
주거비	32,315	155,303	44,724	122,530	-1.13
광열수도비	39,567	50,357	38,146	42,978	0.40
가구집기/가사용품비	12,160	61,680	14,941	44,682	-0.64
피복신발비	15,930	64,093	31,818	125,486	-3.05**
보건의료비	33,318	107,853	18,514	39,481	1.98*
교육비	155	1,978	320	1,917	-1.16
교양오락비	7,270	23,058	12,779	26,908	-3.26***
교통통신비	19,228	21,259	32,179	39,887	-7.58***
기타소비지출	64,257	108,238	75,394	122,501	-1.41
비소비지출	51,094	273,021	55,626	159,319	-0.24

은 주로 식비, 기타소비지출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순으로 월 3만원 이상의 지출을 하고 있으며, 남성은 식비, 기타소비지출비, 외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피복신발비 순으로 월평균 3만원 이상의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소비지출 패턴의 차이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으나, 여성노인 독신가구의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노인이 많고, 남성노인의 경우 여성노인보다 취업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자기 집을 소유하지 못한 비율이 더 높아 지출비 규모 순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낮은 노인은 식비, 의료비, 주거비가 총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한 박경란 등(1995)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낸 비목은 식비, 외식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로, 여성은 식비로 월평균 10만원 정도를 소비하는 반면 남성은 13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식비에서도 외식비의 비중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은 5,400원 정도, 남성은 47,500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었다. 이 점은 남성의 가사노동 수행정도가 여성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며, 은퇴한 남성노인 독신가구가 여성노인 독신가구와는 유의미하게 외식비 지출에 차이를 보인다고 한 Nieswiadomy & Rubin(1995)의 연구결과와도 같다.

피복신발비의 경우, 여성노인은 월 16,000원을 지출하는 반면 남성노인은 약 32,000원을 지출해 2배 가까이 남성노인의 지출이 많았다. 그러나 보건의료비의 경우에서는 여성노인이 약 33,000원 지출하는데 반해 남성노인은 18,500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 여성노인의 건강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즉, 건강하지 못한 노인 집단이 건강한 집단보다 재정적 부족을 더 많이 느끼며, 노인독신가구 중 여성의 경우 건강상태가 남성보다 나쁘다는 선행연구결과를(김익기 이 6인, 1999; 박경란, 1995; 심영 외 3인, 1996; Lee, 1994) 지지하고 있다. 교양오락비의 경우 여성은 월평균 7,300원, 남성은 여성보다 많은 13,000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어 취업노인의 경우 교양오락비 지출이 더 많다는 김연정(1998)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즉 본 연구대상 중 남성노인은 여성노인보다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 이같은 결과를 보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교통통신비 역시 여성노인보다(월평균 약 19,000원)에 비해 남성노인의 지출수준이 높다(월평균 약 32,000원).

2.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가계특성이 가계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1)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가계지출비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가계지출비는 다시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나누어지는데 총체적인 가계지출비에 있어 여성노인에게는 직업유무와 가구연간소득이, 남성노인에게는 교육년수와 가구연간소득만이 영향력있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은 오히려 직업이 없는 경우, 가구연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총가계지출비 수준이 높았으며, 남성노인은 교육을 많이 받고 가구연간소득이 높을수록 총가계지출비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여성노인의 경우 직업을 가진 노인이 오히려 가계지출비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은 직업선택이 생계유지와 관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총 가계지출비 중 소비지출에 영향력있는 요인은 여성노인에게는 직업유무, 교육년수, 가구연간소득이, 남성노인에게는 교육년수, 가구연간소득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은 직업이 없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수준이 높으며, 남성노인은 총가계지출비와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연간소득이 높을수록 소비지출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조세나 공적연금, 사회보험 등이 속하는 비소비출에는 여성노인의 경우 연령, 주거형태, 가구연간소득이, 남성노인의 경우는 연령, 교육년수, 가구연간소득, 거주지역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노인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기 집을 가지고 있고 가구연간소득이 높을수록 비소비지

<표 5>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가계특성이 가계지출에 미치는 영향

변수 \ 비목		총 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여 성		남 성	
		b	β	b	β	b	β	b	β	P.E	S.E	P.E	S.E
가구주연령	55-64세	-49180	-.03	-121156	-.11	23926	.02	-91215	-.10	-85598	29390**	26419	43054
(기준:75세이상)	65-74세	48730	.03	-147481	-.13	60811	.05	-93394	-.09	-66821	25540**	151647	46753***
직업유무(기준:없음)	있음	-172425	-.09***	-32515	-.03	-123585	-.09***	18513	.02	24138	21145	69737	36816
교육년수		3757	.02	20071	.20**	10740	.07**	16774	.18**	1641	2548	7095	3130*
주거형태	자가	38445	.02	-29549	-.03	29911	.02	-4288	-.00	-157785	25576***	33468	32990
(기준:기타)	전세	64272	.03	123781	.09	40033	.03	131558	.10	-35582	30687	28786	44688
가구연간소득(천원)		98	.54***	46	.64***	53	.40***	33	.50***	33	2***	17	2***
거주지역(기준:군부)	시부	57346	.03	-110610	-.10	44462	.04	-68152	-.07	2228	20160	76063	32764*
상수항		-113224	.00*	173930	.00*	2538	.00	150126	.00	-116039	48506*	-429281	91090***
F-Value		104.61***		22.03***		62.03***		12.42***					
R-square		.30		.46		.20		.33					
Log Likelihood										-15777.78		-1707.61	

*p<.05, **p<.01, ***<.001

출을 더 많이 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남성노인은 75세 이상 고령노인보다 65-74세 집단에 속하는 이들이,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연간소득이 높고 시부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비소비항목에 더 많이 지출하는 성향을 나타내었다.

2) 소비지출의 세부항목에 미치는 영향요인

(1) 식비

소비지출비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식비의 지출은 여성노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집단에 비하여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가를 소유하고, 가구연간소득이 높을수록, 시부 거주인들이 보다 더 많았다. 남성노인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식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사회에서 그 지출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외식비지출에 있어서는 여성노인의 경우, 75세 이상의 고령노인일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고 전세에 비해 기타의 주거형태를 보이는 이들일수록, 가구연간소득이 높을수록, 군부에 거주인들의 지출이 더 많은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남성노인의 경우는 직업이 없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연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외식비 지출성향이 더 높았다.

(2) 광열수도비

여성노인의 경우, 광열수도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업유무, 교육수준, 주거형태, 가구연간소득, 거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가구연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군부거주인일수록 지출규모가 크다. 남성노인의 경우는 직업이 없고, 가구연간소득이 높을수록 지출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3) 주거비

여성노인은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타 거주형태를 보이는 이들보다 자가, 전세의 주거형태를 보인 이들이, 가구연간소득이 높을수록, 군부 거주인의 경우 주거비 지출 성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은 직업이 있고, 기타의 주거형태를 보이는 이들보다 자가, 전세의 주거형태를 보인 이들이, 가구연간소득이 높을수록, 군부 거주인의 경우 더 많은 지출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4)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여성노인의 경우, 직업이 있고, 가구연간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성향이 더 높았으며, 남성노인의 경우는 가구연간소득만이 정적 성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교양오락비

여성노인의 교양오락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연령, 직업유무, 교육수준, 주거형태, 가구연간소득이었다. 즉, 가구주 연령이 55-64세인 집단이나 65-74세 집단에 비해 75세 이상된 고령 노인들이, 그리고 직업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가소유주에 비해 기타의 주거형태를 보인 이들이, 가구연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성향이 더 높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교양오락비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성영애 등(1997)의 연구결과와 같으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은 여행, 취미, 오락비 지출이 높아진다고 한 박경란 등(199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성노인의 경우는 가구연간소득이 높고 군부에 거주인들의 경우 지출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6) 피복신발비

여성노인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75세 이상인 고령노인들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연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피복신발비 지출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성노인 의 경우, 65-74세 노인보다 75세 이상된 고령노인일수록,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이 높을수록 피복신발비 지출성향이 더 높았다.

(7) 보건의료비

여성노인의 경우 직업이 있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연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군부 거주인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성향이 높았다. 남성노인의 경우는 직업이 없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가소유인보다 기타의 주거형태를 보인 이들이 보건의료비 지출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8) 교통통신비

여성노인의 경우, 교통통신비 지출은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타의 주거형태를 보인 이들보다 자가 소유인들이나 전세의 경우, 그리고 가구연간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남성노인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연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교통통신비 지출이 더 많았다.

이는 교육수준이나 항상소득과 교통비지출간의 정적 관련성을 언급한 Nieswiadomy & Rubin(1995)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9) 기타소비지출

기타소비에는 여성노인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타의 주거형태보다 자가소유인들이, 가구연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지출하고 있었으며, 남성노인의 경우에는 기타의 주거형태보다 전세 주거인일수록, 가구연간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노인 독신가구에 있어서 각 지출항목에 빈번히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소득과 교육이, 여성노인에게는 소득과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의 경제적 지위나 수준에 결정적 요인이라 볼 수 있는 소득과 교육에 있어 남성노인 독신가구가 여성노인 독신가구보다 수준이 나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노인 독신가구에서는 각 항목의 지출비 규모에 소득과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력을 드러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고령사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은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노인인구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집단 내 이질적 특성도 드러나고 있어 사회적 대책을 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노인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들어 1인가구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그 구성원 중 상당수가 노인이라는 점은 노인독신가구가 처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을 암시하는데, 이들의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배경으로 노인독신가구가 처한 경

<표 6> 남녀노인 독신가구의 가계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변수 \ 비목		식비				(외식비)				광열수도비				주거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b	β	b	β	P.E	S.E	P.E	S.E	b	β	b	β	P.E	S.E	P.E	S.E	P.E	S.E	P.E	S.E
가구주연령	55-64세	19468	.06***	-42614	-.15	-10374	4373*	-24268	16352	-3343	-.03	-10543	-.12	-142976	37100***	-2281	48402	6968	4961	-12705	13122
(기준:75세이상)	65-74세	11858	.06*	-56245	-.18	-10556	3915**	9299	16499	147	.00	-12474	-.13	-136953	33120***	-12965	50331	-6566	4203	8513	13439
직업유무(기준:없음)	있음	-8111	-.03	33313	.12	-1970	2950	-32998	13039**	8108	.07**	-16065	-.19*	77039	25587**	104490	38807**	16217	3670***	-6462	11106
교육년수		2952	.11***	4713	.17*	1775	354***	3408	1121**	819	.06**	571	.07	16262	2920***	-3540	3383	199	437	213	932
주거형태	자가	24551	.11***	-38242	-.13	-6693	3616	13366	12299	11456	.11***	-5875	-.07	330203	26474***	285532	42969***	5755	4029	-3556	10132
(기준:기타)	전세	7050	.03	43181	.11	-10017	4165*	-23548	14944	3834	.03	-251	-.00	399427	35983***	282402	50861***	-359	4867	-11172	13022
가구연간소득		9	.40***	2	.11	3	0***	3	0***	2	.21***	2	.37***	10	2***	9	2***	10	0***	2	1**
거주지역(기준:군부)	시부	10776	.05*	10061	.04	-7403	3005**	10753	11909	-5291	-.05*	5711	.07	-110589	24829***	-70598	33683*	6079	3463	-4243	10061
상수항		13947	.00*	107805	.00***	-22384	6820***	18221	31185	19831	.00***	33504	.00***	-702766	61723***	-547257	110036***	-73481	8015***	296	25636
F-Value		86.27***		3.85***						19.81***		3.94***									
R-square		.26		.13						.08		.13									
Log Likelihood						-7521.00		-1993.63						-7755.31		-1367.81		-16707.66		-1762.79	

변수 \ 비목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P.E	S.E	P.E	S.E	P.E	S.E	P.E	S.E	P.E	S.E	P.E	S.E	b	β	b	β	b	β	b	β
가구주연령	55-64세	-4883	1847**	-4339	6178	-36021	8265***	-47390	37552	11879	10237	-5485	10670	7656	.17***	6461	.08	25109	.11***	-24913	-.10
(기준:75세이상)	65-74세	-6002	1570***	-10844	6209	-22164	7140**	-79152	37753*	5117	8618	3673	10929	4129	.10***	-3016	-.04	19819	.09***	-3700	-.01
직업유무(기준:없음)	있음	2778	1380*	3641	5190	5554	6000	-31265	30034	14932	7771*	-25761	9218**	-1715	-.04	73	.00	-8720	-.04	-32329	-.13
교육년수		877	168***	536	443	1944	725***	-582	2468	2571	945**	2681	761***	1072	.20***	1353	.18*	2688	.10***	1172	.05
주거형태	자가	-4568	1562**	-9085	4752	-1175	6785	-49555	26351	-15233	8574	-21665	8343**	3430	.08**	-3334	-.04	21735	.10***	27318	.11
(기준:기타)	전세	1211	1881	-954	5937	-11012	8064	6597	33893	-450	10359	-13632	10540	3146	.06*	3587	.03	5678	.02	49300	.15**
가구연간소득(천원)		1	0***	1	0**	4	1***	11	2***	2	1*	-1	1	2	.28***	1	.25**	9	.40***	12	.73***
거주지역(기준:군부)	시부	874	1307	-12389	4653**	-4066	5771	10444	26267	-15362	7337*	1994	8258	617	.01	2897	.04	5119	.02	-11733	-.05
상수항		-1165	3023	17258	11970	-15514	13144	3103	68321	-23038	16798	30854	20878	857	.00	9266	.00	-22991	.00***	-8368	.00
F-Value														76.27***		5.44***		80.79***		23.01***	
R-square														.24		.18		.25		.47	
Log Likelihood		-19028.63		-2109.32		-12957.75		-1606.23		-18914.22		-1830.93									

*p<.05, **p<.01, ***<.001

제적 상황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통계청의 1996년도 가구실태조사자료가 이용되었으며, 55세 이상된 노인집단 중 1인 가구의 형태만을 분류해내고 가구주를 기준으로 성별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눈 후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에서 얻어진 몇 가지 결론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간소득액에서 여성노인은 약 510만원, 남성노인은 약 766만원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여성노인은 주로 부업소득이나 이전소득 수준이 남성보다 높아 소득원천이 성별에 따라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즉, 여성노인은 남성노인에 비해 노후를 위한 경제적 대비가 의존적이라 볼 수 있는데, 노후에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유지하려면 여성의 경우 노인기 이전에 이러한 소득원천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모색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득창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노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교육수준이 남성노인에 비해 낮다는 점에서 경제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많아져야 할 것이다.

둘째, 두 집단의 가계지출 규모는 조사당시 최저생계비와 비교할 때 여성은 그보다 낮고 남성은 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비지출의 세부항목 중 식비, 외식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등에서는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 중 보건의료비를 제외하고는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지출수준이 높았다. 이는 여성노인은 고령자가 많아서인 것으로 해석되며, 남성노인은 상대적으로 직업도 있고, 연령도 낮아 활동이 많기 때문에 부대비용의 지출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노인의 경우 소득수준은 낮으나 아픈 노인은 많다는 점에서 이들의 환경은 상대적으로 남성노인보다 열악하며 빈곤의 위험율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복지체계의 수혜대상이 홀로 사는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건강을 돌봐 주거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비교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직업을 갖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셋째, 남녀노인 두 집단 모두 총 가계지출액수는 연간소득규모와 정적으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은 직업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보다 가계지출액수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직업을 유지하는 목적이 생계비 마련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소비지출비목의 하위 영역에서 남성은 소득과 교육이, 여성은 소득과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계의 경제적 지위에 결정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소득과 교육에 있어 남성노인이 여성노인보다 나은 수준임을 확인시키는 결과이다. 즉, 남성보다 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노인 독신가구에서는 각 항목의 지출비 규모에 소득과 교육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 남성노인 독신가구를 위한 복지혜택의 수혜는 소득과 교육수준을 근거로 자활의 기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성노인 독신가구에게는 남성노인 독신가구에 적용되는 기준 외에 직업은 있으나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이들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분석과정과 결론을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의 특성상 노인의 경제생활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요인은 파악되지 않았다. 여성노인의 경우 보건의료비가 남성에 비해 많이 지출되는 항목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노인의 건강상태가 이들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암시하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그 내면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여 분석결과가 보다 폭넓게 해석되지 못하였다. 관련 주제로 연구가 지속되려면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모두 소비지출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소득이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관련되는 요인은 여성은 직업유무, 남성은 교육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적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서 계층을 구분하여 이들의 생활수준을 비교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전국적 규모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통계청 자료가 유용하기는 하였으나, 홀로 사는 여성노인의 경우 노인 집단 중 가장 빈곤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얻어진 이상 빈곤계층에 속하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면까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들의 복지상태를 논하고 구체적인 도움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같은 성별 집단 내에서도 소득수준별 소비지출 규모는 또 달라질 수 있으므로 노인의 삶의 질을 논하고 바람직한 노후생활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계층별 생활패턴을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고양곤(1999). 21세기 노인문제와 사회복지관의 역할. 동광, 96, 37-64.

김동일(2001). 장수사회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생존전략. 한국노년학, 21(1), 167-181.

김순미(1998). 재무계획 수립을 위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10), 179-196.

김연정(1998). 은퇴노인가계와 취업노인가계의 소득, 지출 및 자산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6(7), 57-67.

김익기, 김동배, 모선희, 박경숙, 원영희, 이연숙, 조성남(1999). 한국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미래인력연구센터.

김태현(1999). 실버산업의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문숙재, 김순미, 김연정(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박경란, 제미경, 오찬옥(1995). 대도시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가족·소비·주거생활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5(2), 117-139.

박영란(1999). 21세기 노인부양과 여성노인의 문제-여성노인과 복지-. 99서울 국제노년학대회 특별후원 심포지움, 60-71.

박재간, 모선희, 원영희(1996).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방향-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정책연구, 4(동계호).

박태환(1991). 노년층의 주거연속체와 공동체 형성. 한국노년학, 11(2), 131-161.

서경현, 김영숙(2003).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지원과 정신건강에 관한 탐색. 노인복지연구, 21, 2003년 가을호, 7-26.

성영애, 양세정(1997).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소비지출구조 및 관련요인의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5), 103-117.

성지미, 이윤정(2001). 노인독신가구의 경제상태와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9(2), 11-130.

스탠리 파커(1976). 이연택, 민창기 역(2002). 현대사회와 여가. 서울:일신사.

심 영, 김대년, 조명희, 조영희(1996). 노인복지 측면에서 본 충청북도 지역 노인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경제 및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19.

심 영(2000). 단독가계 노인소비자의 소득, 자산, 소비지출 분석. 소비문화연구, 3(1), 121-145.

양세정, 성영애(2001). 노인가계의 경제구조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73-190.

유경준(1997.7). 1997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생계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이경희, 장온정(1991). 단독가구노인의 주거만족도에 관한 연구-도시 농촌지역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 9(2), 225-240.

이기영, 조영희, 송혜림, 이승미(1998). 생활설계론. 교문사.

이신숙, 이정주(2001). 남녀 노인의 경제상태, 건강상태,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과학회지, 4(1), 1-10.

이윤정(2003). 노인의 여가생활시간 구조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정숙(1998). 노인문제에 따른 사회적 적응활동에 관한 연구-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사회, 3(21), 119-148.

정경희, 조애저, 오영희, 변재관, 변용찬, 문현상

(1998).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1998). 가구소비실태조사보고서.

통계청(2002. 7). 2000 인구주택총조사 최종집계결과-여성, 아동, 고령자, 1인가구부문. http://www.nso.go.kr

통계청(2003. 10). 2003 고령자통계. http://www.nso.go.kr

Embrey, L. L. & Fox, J. J (1997). Gender differences in the investment decision-making process. *Financial and Counseling and Planning, (2)*, 33-39.

Fitzsimmons, V. S. & Wakita, S. (1993). Expectaion of future financial condition: are men and women different?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165-180.

Lee, H. S. (1994). Factors influencing financial strain on elderly people who live alone in the U.S.A.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8(3)*, 265-278.

Nieswiadomy, M. & Rubin, R. M. (1995). Change in expenditure pattern of retirees: 1972-1973 and 1986-1987. *Journal of Gerontology, 50B(5)*, S274-S290.

Rubin. R. M. & Nieswiadomy, M. (1994). Expenditure patterns of retired and nonretired persons. *Monthly Labor Review, 117(4)*, 10-21.

Schulz, J. H. (1995). *The Economics of Aging*. Sixth Edition. Auburn House.

(2004년 4월 27일 접수, 2004년 9월 15일 채택)